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역거점사업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주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CONTENTS

I	사업개요	03
II	진행과정	11
	1. 자문회의	
	2. 상호모니터링	
	3. 전문가모니터링	
	4. 기획자교류워크숍	
III	후기	97
	1. 에필로그	
	2. 기획자교류지원사업 이모저모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 나. 프로그램명 : 탐구생활(나는 학생이다)
- 다. 기간 : 2016. 6~11월
- 라. 대상 : 경기도 지역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기획자
- 마. 주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 바.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사.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가. 목적

- 1) 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자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 개최
- 2) 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를 시, 도연합회에 위탁 운영
- 3) 경기도 지역 동사업의 향후 방향 모색과 교류네트워크 활성화
- 4) 자신(기획자)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향후 사업의 다양한 시각형성

나. 추진방향

- 1) 동 사업의 지역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시도연합회의 위상 정립 및 시스템 구축
- 2) 자문기구와 컨설팅 활용을 통한 지역기획자역량강화
- 3) 모니터링(상호, 전문가) 방향성 제시
- 4) 워크숍을 통한 향후 사업 방향 설정, 우수사례 도출 및 교류네트워크 활성화

3. 사업내용

가. 지역문화전문가자문회의 개최 (7월 중)

- 1) 단위사업(일반사업, 기획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안) 도출
- 2) 워크숍 중 단위사업별 2차 분석과 향후 방향 도출
- 3) 모니터링 취합 결과를 통해 보는 사업 방향 및 우수사례 도출
- 4) 효과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방향 제시

나. 동 사업 기획자 교류를 위한 상호모니터링 실시

- 1) 일시(안) : 2016년 8월 마지막주~9월 한달간(일정은 추후 조율)
- 2) 장소(안) : 경기도내 사업수행 기관
- 3) 사업대상 : 동 사업 수행단체 34곳 기획자간(강사포함)
- 4) 추진방향 :
 - 가) 사업별 매칭 설정(단위사업별, 권역별 희망조사 실시)
 - 나) 상호 모니터링 일정 파악
 - 다) 의견 취합(보고서용)

다. 동 사업 기획자 교류 및 방향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워크숍 개최

- 1) 1차 :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방향찾기 및 Boom-up을 위한 워크숍
 - 가) 일시(안) : 2016년 8월 18일(목) 11:00~15:00
 - 나) 장소(안) : 경기문화재단 1층 GAP
 - 다) 사업대상 : 동 사업 수행단체 기획자 및 대상자 1인 등 총 60명
 - 라) 추진방향 :
 - (1) 동 사업 추진단체 소속 기획자, 어르신 동반참여 원칙
 - (2)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 로드맵 작성(동 프로그램별 구성 제시)
 - (3) 효과적 모니터링 설계를 위한 특강(상호 → 전문가)
 - (4) 상호 모니터링 연결
- 2) 2차 : 차년도 방향설정 및 기획자교류 워크숍
 - 가) 일시(안) : 2016년 10월 7일(금)~ 8일(토)
 - 나) 장소(안) : 서울(경기도의 중간지점)
 - 다) 사업대상 : 동 사업 수행단체 기획자 및 대상자 1인 등 총 60명
 - 라) 추진방향 :
 - (1) 동 사업 추진단체 소속 기획자, 어르신 동반참여 원칙
 - (2) 경기도 지역 로드맵의 취합 결과 분석 특강
 - (3) 모니터링(상호, 전문가) 결과 분석 특강
 - (4) 동 사업의 내용 및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방향 공유와 네트워크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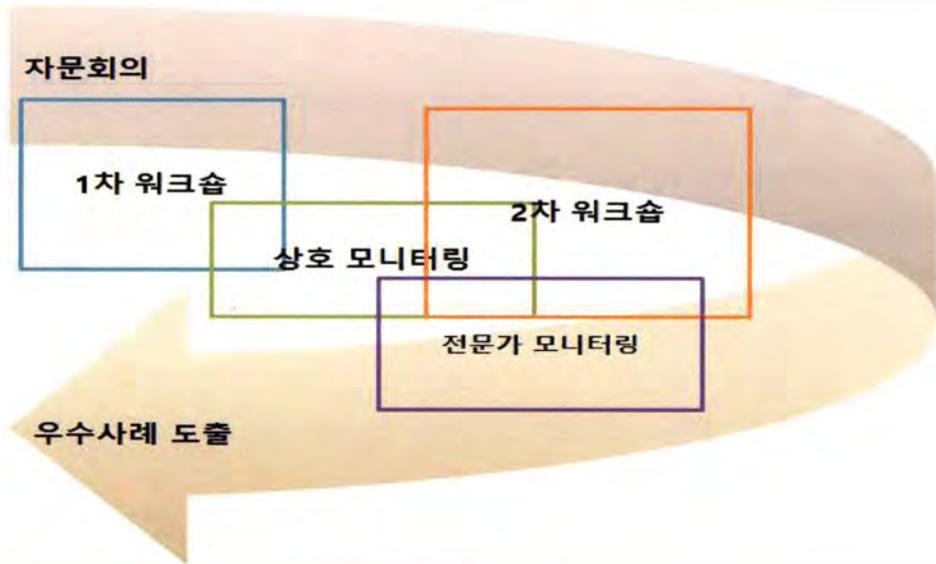
※ 세부기획(안)

구분	세부내용	비고(인원구성)
자문회의	가) 단위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 도출 (워크숍 강의 및 컨설팅 지도 포함)	
	나) 워크숍 이후 단위사업별 2차 분석과 향후 방향 도출	
	다) 모니터링 취합 결과를 통해 보는 사업 방향 및 우수사례 도출	문화기획자 및
	라) 효과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방향 제시	문학평론가 등 4인
모니터링	34개 지역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실시(전문가)	
	34개 지역 기획자간 상호 모니터링 실시(일반 기획자)	
워크숍	①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방향찾기 및 Boom-up을 위한 워크숍 모니터링(상호, 전문가) 결과 분석	※ 단위사업별 (7개 분임) 활동가 21개, 봉사단 21개, 동아리 9개, 콘텐츠 1개, 네트워크 1개 ※컨설턴트 자문회의 참여인원(5), 도사무처장(1)
	② 차년도 사업에 관한 방향성 설정 및 기획자간 교류/모니터링 분석과 나눔을 위한 워크숍	

4. 추진일정

시기	내용	비고
6월	사업 기획 및 컨셉 도출 기획회의	
7월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8월	네트워크워크숍 개최(특강, 컨설팅 워크숍)	
	모니터링 실시(상호, 전문가)	
9월	3차 자문회의	
10월	네트워크워크숍 개최(특강, 컨설팅 워크숍)	
11월	결과보고 및 정산	

5. 평가 및 성과산출



6. 기대효과

- 가. 동 사업의 일괄된 흐름으로의 전개를 통한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
- 나.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역량의 강화
- 다. 소속 지역의 로드맵 직접작성으로 주도적 문화기획자로의 성장
- 라. 프로젝트형 기획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원 위상 강화

□ 경기도지역 동사업 선정현황

No.	단체명	단위사업	사업명
1	고양문화원	활동가	고양행주취타대
		봉사단	늘푸른 인형극 동화구연단
2	과천문화원	활동가	승승장구 난타
		봉사단	사랑매듭나누미
3	광주문화원	봉사단	너른고을 옛이야기 나눔 봉사단
4	구리문화원	활동가	건원취타대
		봉사단	어르신전래놀이나눔봉사단
5	김포문화원	봉사단	경기민요실버합창단
6	남양주문화원	봉사단	미소찾기 시니어 뮤지컬
7	동두천문화원	활동가	노끈과 지끈으로 엮어내는 생활의 즐거움
		봉사단	어화 좋을씨구, 어르신 이담풍물놀이 한마당
		동아리	짱, 짱이야 실버색소폰 악극단 행복누리 콘서트
8	부천문화원	활동가	나도 뮤지컬배우다!
9	수원문화원	봉사단	2016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검정고무신"
10	시흥문화원	활동가	'추곡서원(楸谷書院)'
		봉사단	2016잉벌로밴드(전통과 현대의 하모니)
		콘텐츠	시흥 우리마을 만화영화공작소
11	안산문화원	봉사단	은빛소리 아코디언 어르신문화나눔 봉사단
		동아리	실버밴드'천하태평'어르신문화동아리사업
12	안성문화원	활동가	두레그림마당
		동아리	안성맞춤 어르신 동아리 봉사단
13	양주문화원	활동가	"나도야 전통주 빛는 장인"교실
14	양평문화원	봉사단	문화재비누만들기
15	연천문화원	활동가	"얼썬! 부채와 장고가 같이 만났네"
16	용인문화원	봉사단	실버합창단 '은빛 하모니'
		네트워크	매마수 지하철타구! 버스킹하고!
17	의왕문화원	활동가	행복을 전하는 브라보악단
18	의정부문화원	활동가	다종이 인형으로 재연하는 『응답하라 1960』
		봉사단	은빛인생 2막3장 「꿈을 실은 사진관」 나눔봉사단
		동아리	연륜가득 마음가득 춤누리예술단 시즌5

No.	단체명	단위사업	사업명
19	이천문화원	활동가	구만리뜰 풀짚공예교실
20	평택문화원	봉사단	장승과 솟대'
21	포천문화원	활동가	포천늘푸름합창단
		봉사단	포천사랑 문화나눔 봉사단
		동아리	어르신 한자동아리<서당체험>
		활동가	극단 초록 나비'연극인 양성
22	화성문화원	봉사단	화성춤클럽-'문학선생의 춤과 함께'
		동아리	일쑤!우리가락 한마당 공연 지원
		동아리	화성문화빛그림 전시 지원
23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동아리	커튼콜! 스토리텔링 매직아트'
24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봉사단	꿈드림실버인형극단
25	소동면물골안 어르신학교	봉사단	"비밥!! 퍼커션으로 세상을 두드리다~"
26	아해박물관	봉사단	어르신 효 큐레이터
27	양평군 노인복지관	활동가	Beck歲 청춘 예술단
28	연천군 노인복지관	활동가	미라클 실버 합창단
29	의왕시사랑채 노인복지관	활동가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복지홍보사업 '온(溫)-AIR'
30	의왕시아름채 노인복지관	활동가	가로수(노래가, 늙을로, 빼어날 수)
31	평택남부 노인복지관	활동가	문화소의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단 양성사업 "불타는 청춘 인형극단"
		활동가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우리마을 문화학당'
32	평택농악보존회	봉사단	평택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행복나눔이"
		봉사단	동화구연으로 소통하는 "오손도손 봉사단"
33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동아리	화(火)로(老)동아리[뜨개질로 사랑을 전하는 화(火)따뜻한 로(老)인]
		활동가	어르신 문화예술학교- 풀짚공예의 추억
34	풀짚공예박물관	활동가	어르신 문화예술학교- 풀짚공예의 추억

여 백



Ⅱ 진행과정

1. 자문회의
2. 상호모니터링
3. 전문가모니터링
4. 기획자교류워크숍

여 백

1. 자문회의

가. 개요

1) 목적

- 가) 단위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안) 도출
- 나) 워크숍 이후 단위사업별 2차 분석과 향후 방향 도출
- 다) 모니터링 취합 결과를 통해 보는 사업 방향 및 우수사례 도출
- 라) 효과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방향 제시

2) 자문위원 : 4인

3) 자문위원 구성 : 문화기획자, 문학평론가 등

4) 횟수 : 3회

나. 진행일정

시기	내 용	비고
6월	자문위원 섭외	
7월 13일	1차 자문회의	
7월 21일	2차 자문회의	
9월	전문가 모니터링 진행	
10월 6일	3차 자문회의	

다. 내용

1) 1차 자문회의

가)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1:00~

나) 장 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2인, 자문위원 4인

라) 내 용 :

(1)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 사업 개요 설명

(2) 논의사항

■ 올해 기획자교류지원사업 어떻게 갈 것인가?

- 동 사업 워크숍을 경기, 부산, 울산 세 지역이 공동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이 계획서대로라면 지극히 경기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세 지역이 모두 원원하는 모양이어야 한다.
-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 워크숍이던지, 컨설팅이던지 신뢰가 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권역별 어르신 성과 사업을 먼저 개최하다보니, 일정부분의 단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7월 12일 진행되는 페스티벌31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 현재 계획서 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작년수준의 결과물에만 그치게 된다.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각 기관의 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 참고될 만한 도서를 정해 읽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 결과정리

- 작년에는 변화하는 어르신의 초점,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존속 하려면 기획자의 관점, 기획자의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기관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기획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움 토로가 주된 내용이다. 그 부분에서 기획자들은 사업을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단지 사업으로써만 봐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기획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주제를 찾으면 될 것이다.

- 1) 어르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기획자) 는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까지 해봤다. 라던지...
- 2) 당신이 어르신이 된 후에 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 란 질문을 던지면 하나같이 '내가 이걸 왜 해요.'라는 답변이 나왔었다. 이걸 심각한 문제다. 관점 전환을 할 수 있는 실마리, 꺼리를 던져 줘야 한다. 현재는 사업이 매우 도식적이다. 도식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그 기획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 3) 각 지역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은데, 경험에만 갇히면 문제가 있다. 우리는 무거운 주제인데,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폐적인 현상이 문제이다. 국내외 어르신들의 환경, 유입률 등이 떨어지는 현상 상황 판단에서 기획자들은 너무 둔감하다. 기획자들에게 그런 경각심, 자극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획자들은 세상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감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할 힘이 필요하다.

⇒ **답은 역량강화이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역량강화는 그 뜻이 오염되어 있다. 학력이 아니라, 힘력의 의미를 사용한) 올해는 역량강화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맞추자. 기획자에게는 그것이 특히 중요하다.

- 현재 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을 보면 지극히 경기도만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사전에 뭘 하건 그쪽 기획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워크숍 때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 '따로 또 같이'가 답이다. 앞서 말했듯 기획자 역량강화는 전 지역에 걸쳐 통용된다. 워크숍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운용하자. 기본 주제를 잡고, 참여 기관 기획자들을 돌리는 순환구조를 만들어(1~5교시: 자기 제정립, 6교시: 정리), 기획자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자.
또한, 이 방법을 사전에 부산, 울산과 논의하겠다. 그리고 간략한 워크숍 프로그램은 공지에 나가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 자문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자.

- 앞으로의 모니터링 방향, 사업 추진 순서

⇒ 상호모니터링과 전문가 모니터링은 8월 18일전에 끝내는 것으로, 자문위원들의 일정에 맞는 대로 각자 일정을 잡고, 그 결과지를 받는 것으로 하겠다.

- 1) 상호모니터링 : 사전 정보(무슨 사업에 관심이 있다)가 없을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호 연결을 주기적으로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고 갔던 내용을 정리해 결과지를 받아야 한다.
- 2) 전문가모니터링 : 페스티벌31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가고, 우수사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곳은, 연장선상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자.

- 권역별 어르신 성과 사업의 일환인 페스티벌31-공연, 전시에서의 심사기준

⇒ 자문위원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페스티벌 때 심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자. 심사기준은 공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페스티벌31' 안내 공문에 '심사 진행'이라는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

- 각 기관 참여 워크숍 공지 프로그램은?

1. 사업이 아닌 기획자 포커스
2.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낼 것
3.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 ◇ 사업명 : <2016 기획자교류지원사업> 네트워크 워크숍
'우리는 학생이다'(안)

◇ 일 시 : 2016년 8월 18일(목) ~ 19(금)

◇ 장 소 :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연수원(안)

◇ 대상자 : 경기도 60명, 부산20명, 울산10명 총90명(안)

◇ 내용(안) - 로테이션 (각 부스에 10명 정도가 적당) 추후논의

- 사업진행 참고도서

⇒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 추후 논의사항

- 권역별 어르신 성과 사업에 따른 심사결과
- 상호모니터링 취합 결과
- 전문가모니터링 결과
- 워크숍 프로그램

2) 2차 자문회의

가) 일 시 : 2016년 7월 21일(화) 오전 11:00~

나) 장 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4인, 자문위원 3인

라) 내 용 :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6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 세부내용
수정 부분 설명

(2) 수정된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의 의미

■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연합회에서 제시한 필수 활동 사항에서 상호모니터링과 전문가모니터링의 횟수까지 정해주는 것을 보면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실버대축제 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할까?

⇒ 상호모니터링을 통하여 기획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다른 사업의 참관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사업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의 목적을 상호 배움에 두자. 워크숍은 이러한 상호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우수사례 선정 및 모니터링 방법

- 지난번 사무국장연수 때 우수사례로 선정된 단체가 **의정부-닥종이 인형**으로 재연하는『응답하라 1960』, **남양주-미소찾기 시니어 뮤지컬 용인-실버합창단** '은빛 하모니'이다. 성남은 어르신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 제외한다. 우수사례발굴을 통해 실버대축제에 나가는 버스비 예산은 60만원씩 총 180만원이다.

- 우수사례로 복지관이나 문화원 외의 타 기관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가?
⇒ 선정을 한다면 구색을 맞추는 모양새인데 소강당과 전시실에서 몇 단체를 받았는데 거의 다 처음 시도하는 단체다. 만약 출전시킨다면 결과물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어려울 것 같다.

- 의정부, 남양주, 용인은 전문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문가 모니터링을 6번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3번 더 필요하다.

■ 상호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모니터링에 수업비평의 형식을 취하자. 수업비평은 애정 있게 사업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자뿐만 아니라 강사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티칭(Teaching)이 아니라 배움이기에 강사가 먼저 변화해야하고, 문화원의 구조가 강사의 역할이 크기에 강사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변화이다. 상호모니터링을 상호 배움의 의미로 가져가야 한다.

- 권역별로 가되,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신청 받고, 물리는 문화원이 있다면 왜 물리는지 워크숍 때 사례발표를 하도록 한다. 워크숍 때는 모니터링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 강좌만 개설한 기획자의 경우는 해줄 얘기가 없지 않을까. 상호모니터링에 자문위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

- ⇒ 2차 워크숍 때 권역별로 자문위원이 나눠져서 대화 나누고, 우수사례 뽑는 것으로 한다.

- 8월말에 시작해서 9월중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모니터링 전에 기획자들이 모니터링 나올 수 있도록 사전 공문 발송한다. 모니터링 가는 기획자에게는 기획자교류사업 예산 안에서 모니터링 비용 측정해서 지급한다.

- 우수사례로 복지관이나 문화원 외의 타 기관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가?
- ⇒ 선정을 한다면 구색을 맞추는 모양새인데 소강당과 전시쪽에서 몇 단체를 받았는데 거의 다 처음 시도하는 단체다. 만약 출전시킨다면 결과물로 무엇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의정부, 남양주, 용인은 전문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문가 모니터링을 6번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3번 더 필요하다.

■ 상호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모니터링에 수업비평의 형식을 취하자. 수업비평은 애정 있게 사업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자뿐만 아니라 강사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티칭(Teaching)이 아니라 배움이기에 강사가 먼저 변화해야하고, 문화원의 구조가 강사의 역할이 크기에 강사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변화이다. 상호모니터링을 상호 배움의 의미로 가져가야 한다.
- 권역별로 가되,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신청 받고, 물리는 문화원이 있다면 왜 물리는지 워크숍 때 사례발표를 하도록 한다. 워크숍 때는 모니터링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 강좌만 개설한 기획자의 경우는 해줄 얘기가 없지 않을까. 상호모니터링에 자문위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
- ⇒ 2차 워크숍 때 권역별로 자문위원이 나눠져서 대화 나누고, 우수사례 뽑는 것으로 한다.
- 8월말에 시작해서 9월중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모니터링 전에 기획자들이 모니터링 나올 수 있도록 사전 공문 발송한다. 모니터링 가는 기획자에게는 기획자교류사업 예산 안에서 모니터링 비용 측정해서 지급한다.

3) 3차 자문회의

가) 일 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21:00~

나) 장 소 : 도봉숲속마을 강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3인, 자문위원 4인

라) 내 용 :

(1) 워크숍 결과 공유

(2) 상호모니터링 결과의 의미

(3) 전문가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우수사례 도출

■ 1, 2차 워크숍 참가자들 반응

- 1차에는 상호모니터링을 위한 Boom-up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본인의 사업을 인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는 사업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 그랬었으며, 기획자의 애정 투입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상호모니터링은 비슷한 사업의 경우 호응도가 높았으며, 차년도 관심이 있고 지향하는 사업을 후보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본인의 사업을 홍보할 때 문화원이나 문화시설이나 모두 열의에 차 있었다.
- 2차 워크숍은 본 사업 테마에 맞춰 진행되었고, 기획자들이 냉담한 태도를 예측했으나, 의외로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주입식 강의 이외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한다.

■ 상호모니터링 참여 결과

- 원칙은 상호 모니터링을 고수했으나, 모니터링 기간이 짧았다. 기간을 늘렸을 경우 모두 참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방향 모니터링을 인정한 이유는 내년도 사업의 방향을 참고하고, 기획자간의 교류를 늘리고자 함이었다.
- 상호간은 : 8개 기관 연결, 일방향은 : 10개 기관이 이뤄졌다.

■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 전문가 모니터링은 각 기관의 잘 잘못을 가려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문화시설 자체에서 원하지 않으며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획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했다.

■ 우수사례 선정

- 2차 자문회의에 논의된 단체가 **의정부-닥종이 인형으로 재연하는『응답하라 1960』**, **남양주-미소찾기 시니어 뮤지컬**, **용인-실버합창단 '은빛 하모니'**이다.
- 담당자와 전화인터뷰, 사업계획서와 활동사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 단체로 지정했다.

2. 상호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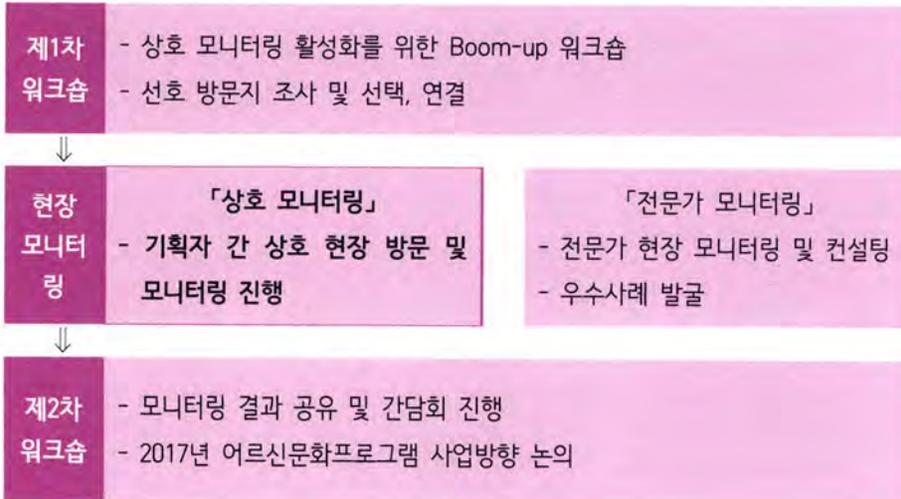
가. 개요

- 1) 기 간 : 2016년 8월 29일 ~ 9월 30일
- 2) 장 소 : 상호 연결 문화시설(* 상호모니터링 매칭 결과 참조)
- 3) 대 상 :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34개 기관/단체 실무자 및 기획자, 강사
- 4) 추진방법 :
 - 가) 1차 워크숍 대상 선호 모니터링지 조사, 매칭
 - 나) 사업 담당자간 개별 연락 후 모니터링 일정 결정
 - 다) 모니터링 대상 사업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 라) 모니터링 진행 및 현장일지 작성 ※ 반드시 일지 작성 제출(증빙)
 - 마) 지원 : 1개 단체당 50,000원

나. 목적

- 1) 지역 기획자간 상호 모니터링 실시로 현장 파악
- 2) 각 지역에 맞는 사업 구상을 위한 자리

다. 내용



라. 상호모니터링 진행 결과

1) 상호 매칭 모니터링

구분	상호 모니터링 대상		
1	과천문화원 (승승장구 난타) 담당자 유소영	⇔	아해박물관 (어르신 호 큐레이터) 담당자 이은비
2	시흥문화원 (2016잉벌로밴드 (전통과 현대의 하모니)) 담당자 최경애	⇔	화성문화원 (극단 '초록 나비' 연극인 양성) 담당자 김숙이
3	양주문화원 (“나도야 전통주 빛는 장인”교실) 담당자 박재홍	⇔	의정부문화원 (다종이 인형으로 재연하는 『응답하라1960』) 담당자 김승미
4	동두천문화원 (노곤과 지곤으로 엮어내는 생활의 즐거움) 담당자 박용철	⇔	풀짚공예박물관 (어르신 문화예술학교-풀짚공예의 추억) 담당자 홍재주

2) 일방향 모니터링

구분	모니터링 기관	모니터링 희망 사업	담당자
1	고양문화원	광주문화원 (너른고을 옛이야기 나눔봉사단)	이종남
2	광주문화원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온(溫)-AIR' 영상교육반)	김지영
3	안산문화원	풀짚공예박물관 (어르신문화예술학교-풀짚공예의추억)	홍재주
4	포천문화원	양주문화원 (“나도야 전통주 빛는 장인” 교실)	박재홍
5	양평군 노인복지관	고양문화원 (늘푸른인형극 동화구연단)	송낙영
6	의왕시아름채 노인복지관	시흥문화원 (2016잉벌로밴드)	최경애
7	의왕시사랑채 노인복지관	시흥문화원 (추곡서원)	이중선
8	연천군 노인복지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문화소외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단 양성사업 “불타는 청춘 인형극단”)	오재영

3. 전문가 모니터링

가. 개요

- 1) 기 간 : 2016년 9월 1일 ~ 9월 30일
- 2) 횟 수 : 5회 (5개 단체 및 기관)
- 3) 모니터링 요원 : 3인

나. 목적

- 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 2)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향후 방향 모색
- 3) 현장에서의 사업 이해도 파악

다. 모니터링지 선정기준

- 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다년간 운영으로 노하우가 쌓인 기관 및 신규 진행 기관
- 2)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
- 3) 단위 사업별 다양한 사업

라. 진행방법

- 1) 전문가 모니터링 대상 기관/단체 최종 선정
- 2) 모니터링 일정 조율
- 3) 대상 기관에서 모니터링 일지 작성 (일지 작성 후 모니터링요원에게 전달)
- 4) 전문가 모니터링 진행

※ 우수사례 기준

구분	지 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정책사업)으로써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인가?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대표 사업으로 지역에 파급력이 있는가? ▶ 사업의 지속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향후 일자리·콘텐츠 사업으로 전환 등) ▶ 사업대상자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은가?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교육이 아닌 능동적인 문화활동가 양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의 내부 역량 및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아리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동아리 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마.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요원	기관/ 단체명	희망 일시	단위 사업	프로그램명	장르	년차
1	모니터 링요원 1	시흥 문화원	7/4	활동가	'추곡서원(楸谷書院)'	양명학 교육	신규
				봉사단	2016잉벌로밴드 (전통과현대의하모니)	밴드 공연	7년차
2	모니터 링요원 2	용인 문화원	9/28	봉사단	실버합창단 '은빛 하모니'	합창	2년차
				네트워 크	매마수 지하철타구! 버스킹하고!	실버동아리지 하철에서 공연_오카리 나, 통기타, 하모니카, 요들	신규
3		풀짚공예 박물관	9/13	활동가	어르신 문화예술학교 - 풀짚공예의 추억	풀짚공예	신규
4	모니터 링요원 3	평택 문화원	9/29	봉사단	장승과 솟대	장승, 솟대 만들기	어르신문화사 업 10년차/ 봉사단 2년차
5		화성 문화원	9/21	동아리	화성문화빛그림 전시 지원	사진	5년차

<3개 기관 선정>

선정과정 : 자문회의 3회, 전문가 모니터링 및
전화인터뷰
각 기관별 사업계획서, 활동사진 참조

가. 남양주문화원

1) 개요

단체명	남양주문화원	권역	경기도
프로그램명	미소찾기 시니어 뮤지컬	단위사업	봉사단
수행기간	2016년 4월~11월	장소	남양주문화원 및 관내
프로그램 횟수	보수교육:15회, 봉사활동:11회	참여자 수	24명
예산	구백만원정(9,000천원)		

2) 프로그램 내용

- 사업목적
 핵가족화로 세대간 소통의 단점과 어려움을 뮤지컬(동극, 연극)을 통해 공감하고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보수교육 및 봉사활동
 어르신, 아동 : 흥부와 제비 (현대뮤지컬 화)
- 사업추진체계
 - 월별 사업 진행
 4~5월 : 단원구성원등 동극, 연극 기획에 따라 각자의 역할나눔, 공연연습, 홍보활동
 6~11월 : 어린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방문공연

3) 프로그램 세부내용<상기 표 프로그램 횟수로 대체>

4) 사업 결과 및 효과

○ 추진실적

- 보수교육 : 총 15회 실시
- 봉사활동 : 총 11회 실시

○ 사업성과 및 효과

- 고른 나잇대편성과 보수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였다고 봄.
- 봉사활동 전과 후의 관리(개선사항 등 평가)로 장기적 발전을 꾀함.
- 장기적 운영방안을 가지고, 단계별 진행이 우수함.

5) 프로그램 특.장점

- 어르신들의 열정적 참여가 돋보임
- 무대구성과 스텝, 배우 모두 자체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자립의 가능성이 높음

6) 향후 과제 및 사업 발전 방안

- 구성력과 레파토리의 지속적 개발이 이뤄진다면, 공연활동처의 증가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문단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7) 프로그램 진행사진



권역별어르신성과사업
“나이없는날31” 공연모습

나. 용인문화원

1) 개요

단체명	용인문화원	권역	경기도
프로그램명	용인문화원 실버합창단 '은빛 하모니'	단위사업	봉사단
수행기간	2016년 4월~11월	장소	용인문화예술원 및 관내
프로그램 횟수	보수교육:55회, 봉사활동:15회	참여자수	20명
예산	일천일백만원정(11,000천원)		

2) 프로그램 내용

○ 사업목적

- 용인문화원실버합창단은 2009년부터 문화원에서 운영한 실버합창단이 2011년부터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을 계기로 창단연주회와 각종 지역축제 공연활동을 진행
- 음악활동을 통해 얻은 기량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찾아가 문화나눔활동과 정기연주회 등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의 합창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합창음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여가선용으로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이끌고자 함

○ 주요내용

정기연습, 문화나눔활동, 정기연주회, 지역행사 참여

○ 사업추진체계

- 월별 사업계획

4월 홍보 및 공연/ 4~11월 복지시설 순회 공연/ 10~11월 정기연주회

*1년차(2017년도)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사업운영

*2년차(2018년도) : 문화나눔봉사활동 및 지역사회공연활동

*3년차(2019년도) : 실버합창단 봉사활동 활성화

3) 프로그램 세부내용<상기 표 프로그램 횟수로 대체>

4) 사업 결과 및 효과

- 추진실적
 - 보수교육 및 연습 : 총 55회 실시(월 8회, 7개월)
 - 봉사활동 : 총 15회 실시
- 사업성과 및 효과
 - 정기적인 연습으로 인한 기량향상
 - 복지시설 등 기관방문하여 다수의 합창공연
 - 지역의 문화축제참여와 정기발표회로 홍보효과 높임
 - 장기적 운영방안을 가지고, 단계별 진행이 우수함.

5) 프로그램 특장점

- 어르신들의 열정적 참여가 돋보임
- 합창단이 형성된지 8년 정도가 되었음. 지속적으로 신규인원 교체에도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6) 향후 과제 및 사업 발전 방안

- 지역행사공연과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활동과, 기량향상을 통해 타지역 및 경연대회 출전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음

7) 프로그램 진행사진



노인요양시설 봉사단
공연



노인요양시설 봉사단
공연



노인요양시설 봉사단
공연

다. 의정부문화원

1) 개요

단체명	의정부문화원	권역	경기도
프로그램명	닥종이 인형으로 재연하는 『응답하라 1960』	단위사업	활동가
수행기간	2016년 4월~11월	장소	의정부문화원
프로그램 횟수	교육:33회, 전시:4회	참여자수	20명
예산	일천일백만원정(11,000천원)		

2) 프로그램 내용

○ 사업목적

-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현장에 어르신들이 선두 주자가 되어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지역 공예예술의 한축으로 활동영역으로 확대
-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증명 되었듯, 과거의 추억에 열광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이야기 재 구성으로 생활문화예술로 완성
- 1차 닥종이 인형 제작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활용한 2차, 3차 콘텐츠 개발 모델 발굴

○ 주요내용

개강식 및 총 33회 교육, 전시회

○ 사업추진체계

- 월별 사업계획
 - 3월 참가자 모집 및 개강식
 - 4-11월 교육
 - 7, 9, 10, 11월 작품 전시

3) 프로그램 세부내용<상기 표 프로그램 횟수로 대체>

4) 사업 결과 및 효과

○ 추진실적

- 교육 : 총 33회 실시
- 전시 : 총 4회 실시

○ 사업성과 및 효과

- 프로그램에 스토리를 입혀, 참가자가 원하는 교육이 됨
- 체계적 교육운영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
- 지역의 홍보효과로 스토리를 가진 전시진행
- 1차년도 사업으로 장기적 2,3차 콘텐츠 발굴 가능성이 보임

5) 프로그램 특장점

- 의정부문화원에는 닥종이인형 공예반이 경기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25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닥종이인형 제작을 위한 강사의 노하우와 보조강사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사업에 대한 높은 성과를 예상 할 수 있음.
- 많이 이들이 추억에 대한 공감을 상품화하는 마케팅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 되었으며 닥종이도 이번 작품의 제작 세트장이 의정부에 있어 의정부는 추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음.

6) 향후 과제 및 사업 발전 방안

- 1차년도 다양한 스킬의 교육진행, 2차년도 닥종이인형소재로 다른 콘텐츠 생산, 3차년도 또 다른 콘텐츠로 자생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의 전환

7) 프로그램 진행사진



교육진행



교육진행



전시

4. 기획자교류 워크숍

가. 개요

1) 목적

- 가) 경기도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기획의도 및 상호 모니터링 Boom-up
- 나) 경기도 지역 동사업의 향후 방향 모색과 교류네트워크 활성화
- 다) 자신(기획자)를 돌아보는 계기를 생성하여 향후 사업의 다양한 시각형성

2) 대상 : 경기도 내 어르신사업 담당 기획자, 실무자

나. 진행 일정 및 세부 내용

1) 1차 워크숍(상호모니터링 Boom-up 워크숍)

- 가) 일시 : 2016년 8월 18일(목) 11:30~15:00
- 나) 장소 : 경기문화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
- 다) 특이사항

- (1) 상호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붙업 워크숍
- (2) 선호 프로그램 조사 및 매칭

라) 세부프로그램 : 강의원고 첨부

구분	내용	비고
1	도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기획의도 및 사업계획 설명	
2	효과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노하우	
3	선호 프로그램 조사 및 매칭	

마) 1차 워크숍 정리

- 1차 워크숍에서는 2016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의 기획의도와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상호모니터링과 전문가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2017년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표이다.
- 현재 문화정책의 핵심은 지역을 지역답게 하는 인력을 키워내고, 그 인력이 지역을 지역답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융성이라고 말한다. 핵심은 어르신 문화사업 공동체이다. 연합회에서는 어르신 문화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사업을 두 가지로 놓고 있다. 첫째는 어르신문화사업 콘텐츠 개발, 둘째는 청년 기획자 발굴이다. 어르신프로그램을 청년들이 기획해야 한다는 방향을 연합회 쪽에서는 세우고 있다.
- 핵심사업을 위한 일반사업이 활동가, 동아리, 봉사단 사업인데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거의 활동가, 동아리, 봉사단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핵심사업 보다는 일반사업이 대부분이다. 10년 동안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일반사업만 10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을 지역답게 하기 위해 어르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상호모니터링을 할 때 이러한 지점들을 고민해보라.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정교하게 고민하라 “창조적 비판에 의거한 정확한 자기 규정”이 되어야 한다.
- 그러면 경기도는 어르신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르신 사업의 맥락을 어떻게 잡고 가는가? 작년도 어르신 사업의 로드맵을 경기도 차원에서 그려본 결과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수사례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지역의 로드맵을 같이 그려보자.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냈는지 얘기 해보고, 같이 고민을 나누자.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상호모니터링의 의미를 거기서 찾고 있다.
-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의 삶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그 지점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가 어르신 문화공동체 사업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

2) 2차 워크숍

가) 일시 : 2016년 10월 6일~7일(목, 금) 10:30~

나) 장소 : 서울시 도봉숲속마을(서울 도봉구 위치)

다) 특이사항

(1) 상호모니터링 사례발표의 장

(2) 지역에 맞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역 로드맵 그리기 및 발표

(3) 직접 체험(내 노년의 삶 생각해보기)

라) 세부프로그램 : 강의원고 및 자료 첨부

구분	내용	비고(진행)
1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로드맵	
2	모니터링 사례발표의 장	참가자 모두
3	직접 체험(각자 가지는 추억의 의미란)	참가자 모두
4	생각해보기(시로 접하는 노년의 삶이란)	고영직 문학평론가
5	직접 체험(내 노년의 삶 생각해보며, 말하기)	신희영 문화집합36.5 대표
6	내 지역에 맞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로드맵 그리기 및 발표	참가자 모두

<경기도지역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여 백

경기도지역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과거의 일상이 현재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기획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콘텐츠화 되었을 때 새로운 일상이 탄생한다. 과거의 일상이 현재에 기획된다는 것은 현재의 기획물에 무엇을 채우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들어가면서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에서는 2012년부터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는데, 삶의 질과 행복은 한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의 총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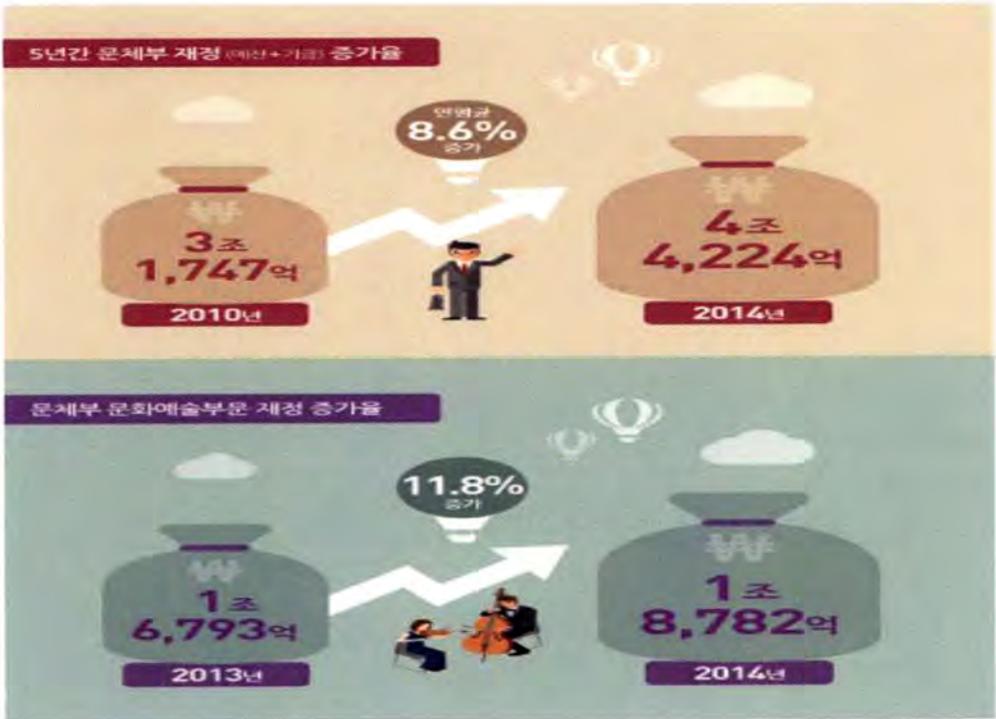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문화예술정책백서>를 발간, 박근혜정부의 국정 4대 기조인 문화융성의 방향을 정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문화융성이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막바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재정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문화적 요구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총 재정투자는 연평균 11.8%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은 연평균 16.1%, 기금은 연평균 6.3%로 확대할 계획이고,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18.2%, 관광 7.6%, 체육 3.7%, 문화 및 관광 일반 8.7%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¹⁾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2월 '지역문화발전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당시 주요과제로 설정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수요측면에서 생활권 단위의 활력 넘치는 지역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과 둘째로 공급측면에서

1) <2014한국문화예술정책백서> p97~98, p184

지역문화의 창의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의 특성화, 자생력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 229개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진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생활 공감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과 생활권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 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등이 그 대표적 정책이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1월 28일)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의무적으로 광역단위, 지자체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었고, 이 기본계획은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p>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정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2) 전통·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3) 지역문화진흥법 및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4) 우수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
---------------------------------------	---

2.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먼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공식적인 사업명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의 정책목표²⁾를 설정하고 있는데,

2) <2015어르신문화프로그램사업평가및만족도조사-보고서> 2015. 12 코뮤니타스 발췌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 어르신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100세 시대, 은퇴 후 어르신 정서적 불안 해소 및 지역의 문화공동체 창출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어르신의 문화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세대/계층 간 소통과 공감을 극대화

위의 사업목표에 의거 2016년 사업³⁾을 다음과 같이 구획정리 하게 된다.



그림 20 2016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내용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및 기관에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외부에서 보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간극이다.

나는 한문연과 지방문화원간 그리고 외부의 관점에서 이 간극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3) 위 보고서 발췌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은 연합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방문화원의 한계를 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다.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 하면 <어르신>사업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 지방문화원에서 보는 어르신사업은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며,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지역 문화원에서 대하는 태도는 현저히 소극적⁴⁾이다.

연합회에서 부탁하니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도 귀찮은 그런 일이다.

그러니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어르신사업>이라는 공식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어르신사업 수행능력'이 문화원의 역량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지난 2015년 10월 21일 한문연 부설 정책연구소가 주관한 <2015지방문화원발전포럼>을 통해 충남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지방문화원의 현황과 발전>이라는 자료 중 전국 228개 문화원의 인프라 분석에 의하면, 평균 3명의 직원이 연간 수행하는 사업의 개수⁵⁾는 평균 40여개에 육박한다.

즉 한 달에 3~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니 지역문화원에서 보면 <어르신사업>이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의 맥락이며 방향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사업을 할라 치면, 정산이 기다리고 있고, 행정감사다 총회다 이사회다, 지역신문에 한 번 말썽 기사라도 나올라 치면 '에라이!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욕먹고 하고 있어?! 그렇다고 급여가 많아? 예잇!' 문화원 직원의 얘기다.

4)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생각임을 우선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경기도지방문화원에서 실제로 느끼는 한문연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원인으로서는 한문연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체 사업의 구도가 지방문화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전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5)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문화강좌 및 조직관리사업(총회, 이사회 등) 수까지를 전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기도 지방문화원 사업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념식	민담설화	인물	세시풍속	민속/전승	역사일반,향토사	문화일반	계
11	3	21	39	61	75	129	339

경기도의 경우 1개문화원 연간 평균 11개 사업을 하고 있다.

자! 힘드니까 접자?! 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래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아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를 연구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기획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교류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

어르신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된 지 10년이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서 얘기한 방법으로 10년을 노력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수립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몇몇의 사례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3. 경기도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다음 그림은 지난 2013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자체적으로 그동안 전개되었던 <어르신문화사업>에 대한 추진 개념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기초적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과 습득을 통해 동아리화하고 어르신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1개 단위 지방문화원 지원체계였다.



6)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5. 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지방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사업은 동아리사업-활동가양성사업-문화나눔봉사단 사업의 3개 프로그램에 거의 올 인(All-In)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동아리 사업보다 활동가에 어울리는 사업이 동아리 사업에 편성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활동가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보이기도 한다.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역어르신동아리(평생학습동아리, 복지관 동아리 등)를 연계한 프로그램일 뿐 지역과 지역이 연계된 네트워크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여행이나 답사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또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은 강사중심의 강좌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르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어르신에 대한 현황, 욕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기획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누군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의한 즉흥적 사업아이템 선정에 따라 전후 맥락에 관계없이 동아리 사업에 넣기도 하고, 활동가 부분이 사업비 규모가 크니 그쪽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해도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된다.

사업의 맥락이 헝클어져 있으니 정산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니 연합회 차원에서는 정산교육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이것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재이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자체적으로 경기도지방문화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정리, 평가하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 1) 단위 사업별 구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 2) 어르신 사업에 공적 예산을 투여하였기에 사업의 결과로 지역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음. 어느 단위 사업이든 지역 사회와 맞닿아 있어야 함. 각각의 사업을 기획자가 엮어낼 필요가 있음. 즉, 지역의 문화 지형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허브 기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
- 3) '수혜자-공급자'의 맥락에서 일부 '수혜자'만 지원받고 있다. 복지는 수혜라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 4) 자발성을 강조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발성이 있는 동아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 투 트랙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 없거나 끌어들이기가 힘들다.
- 5) 문화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시행되며, 양적 성장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애초의 기획의도, 자발성 등이 사라지고 형태만 보급이 된 상황임. 정신은 빠지고 형태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기획의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 기운을 희석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6) 문화 기관에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획이나 관점을 갖기 어렵다. 복지와 문화의 소통, 연계가 필요하다.
- 7) 기획마인드가 퇴색되면서, 창조하는 힘은 줄어들고, 카피하는 힘만 남아 무늬만 남았다. 프로그램에 투입만 하는 것 같다. 복지관도 급하게 예산을 써야하고, 업무가 과중되며, 문화에 대한 관심, 소양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일단 '투입하고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투입되고 소멸되는, 경험이 축적이 안되고 있다.
- 8) 어르신의 만족도는 높는데, 정확한 수요도 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등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 9) 오랜 활동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또한 기획자의 역할이다.
- 10) 새로운 노년층의 문화적, 생애적 특징이 달라지므로 기획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7) 위의 책 인용

나. 어르신 사업의 방향

- 1) by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역량, 의미, 노하우가 있는 동아리에 사업의 방향을 잡아준다던지, 총 지원 사업 중 by로 기획된 사업쿼터제를 시행한다던지 지원 필요.
- 2)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야함.
- 3) 3세대 융합, 시니어-기획자 연결, 단순히 객관화가 아니라 by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2015년까지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한문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의 구도에서 경기도지방문화원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리고 현재의 지방문화원의 역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동아리와 활동가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활동가 사업의 맥락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1. 시민기획역량부문과 2. 적정기술, 숙련기술을 활용한 사회나눔프로그램의 개발 3. 양성된 동아리들의 네트워크사업의 자체 기획이 가능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의 경기도지방문화원의 현황과 사업추진역량으로 볼 때 세대가 융합하고 통합된 형태의 사업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셋째, 우선 경기도지방문화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역 어르신의 현황과 욕구, 수요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한문연에서 사업선정, 추진, 정산의 과정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할라치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주문이다. 이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짜리 사업이다.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반년은 쉬어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청하면 무슨 사업이건 선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그림⁸⁾을 그려보자.

8) 위의 한문연 어르신사업 결과보고서 재편집 인용



그림 23 향후 노인문화프로그램의 발전방향

4. 맺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노인문화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제시하고 있듯이 진정한 의미의 <노인문화공동체>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00문화원의 경우 노인문화활동가 1개, 문화봉사단 1개, 동아리양성 1개 프로그램을 한문연으로부터 26,000천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연합회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5명 정도의 노인 자원봉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명도 구할 수가 없었다. 원장님이 급하게 아는 분께 전화해서 겨우 2명 정도 구할 수 있었다. 수당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둘째,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일상을 현재적 의미의 콘텐츠화에 힘써야 한다.

경기도지역 동사업 현황을 보면 모 문화원에 <노인짚풀공예>프로그램이 있다.

()짚풀공예라는 프로그램의 빈 공간에 당당하게 (노인)짚풀공예라고 쓰고 있다.

과거의 일상이 현재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기획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콘텐츠화 되었을 때 새로운 일상이 탄생한다. 짚풀이라는 과거의 일상이 현재에 기획된다는 것은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인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자하는)짚풀공예라는 형태의 사업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업의 맥락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사업추진의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을까?
셋째, 인문성과 삶의 무늬 발굴

그동안 문화원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문화원마다 느끼는 몇 가지 고충 중 하나는 '다른 곳에서 하는 똑같은 성격의 강좌를 하지 말고 전통적인 것만 하라'는 주문이다.

'전통'은 문화원. '예술'은 예총. 그럼 '전통예술'은?



이제 푸른빛이 도는 기존 문화원의 사업 활동을 확장시켜 지역을 재구성하고 지역을 특성화시켜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역다움'을 만드는 곳이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전 기획 단계부터 2차 고급데이터 확보를 통한 아카이빙이 염두에 두어 져야

하며, 그것을 통한 '문화콘텐츠화'가 지역을 재구성하고 지역다움의 맥락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문화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10년간 구조화된 구도에서 담아내기 어려웠던 두 개의 키워드, 즉 세대통합이라는 관점과 확장된 개념의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로 진정한 의미의 <어르신문화공동체>가 실현되었으면 하고, 그것이 '지역다움'의 색깔을 가지고 저마다 빛나는 문화원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제2차 워크숍 강의자료

<모니터링 사례발표의 장>

▶ 상호 매칭 모니터링

<1. 과천문화원 → 아해박물관>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아해박물관		
사업명	어르신 효 큐레이터		
일시	2016년 9월 22일 (10:00~18:00)		
장소	과천 중앙공원		
모니터링 수행자	노순희, 김기섭, 허옥영, 장영자, 이휘춘, 장재순, 신순자	모니터링 대상자	아해박물관 담당자: 이은비 모니터링: 유소영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해박물관과 한국효문화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전시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후 직접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아울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한국효문화센터의 “세대공감 사랑과 효”를 주제로 한 청소년 글, 그림, 공모전 입상작과 효 자료관을 기획부터 전시까지 직접 운영하여 큐레이터 역할과 함께 인성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시도하였음.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전시준비와 작품들 소개시 참여 어르신들이 실제 박물관 큐레이터의 역할을 다하였고, 이를 통해 금번 사업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울러 삶의 활력을 얻은 소중한 계기마련 ○ 모니터링 통해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시대에 점점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자괴감을 해소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큐레이터 교육을 받고 또한 큐레이터 일을 수행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자부심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제언

- 지역축제와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작품전시 및 어르신 큐레이터 활동으로 또 하나의 지역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사진
(필수)



<2. 아해박물관 → 과천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과천문화원		
사업명	승승장구 난타		
일시	2016년 9월 22일 (13 : 00 ~ 16 : 00)		
장소	과천문화원 청계홀		
모니터링 수행자	이수희, 기영순, 백필여, 유순목, 나기화, 조한홍, 구영숙, 김광미, 김봉자, 강영희, 송영림, 류희자, 김정임, 전영환, 이귀엽	모니터링 대상자	유소영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점에서 진행현황 파악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필수, 계획 대비 진행사항 상호소통) ※ 프로그램 참관 필수 모니터링을 갔을 때 어르신들은 열정적으로 난타 북을 치고 계셨다. 강사님의 기합소리와 함께 난타 북을 두드리며 울동을 겸하여 하는 모습이 멋있게 보였다. 쉬는 시간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난타를 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좋지만 북이 잘 안쳐질 때는 스트레스도 받는다면서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운영계획에는 장구, 난타, 쟁과리, 북등 악기별 난타 창작가락연주 파트별 연습하기였지만 모니터링을 갔던 시간에는 난타가락 북습과 연습이 한창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등)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으며 오히려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앞 다투었다.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마음과 달리 가락이나 동작이 되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셨다. 		

○ 모니터링 통해 느낀 점

어르신들의 열정에 박수를 쳐드렸다.

강사님은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갖
자고 하셨지만 어르신들은 동작하나 순서 하나 더 몸에 담기위해
자발적으로 연습하시는 모습이 열정적이었다.

○ 제언

특별한 의견은 없고 작품이 된 공연을 보았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든다.

사진
(필수)



<3. 시흥문화원 → 화성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 체 명	화성문화원		
사 업 명	극단 초록나비 연극인 양성		
일 시	2016년 9 월 8 일(13 :00 ~ 15:00)		
장 소	화성문화원		
모니터링 수행자	정원철 , 이병권, 최경애	모니터링 대상자	김숙이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추가모집을 해야 함. ○ 각색 본 만들어서 연습 중(이옥선생의 작품 중 하나 선택 연습) 대사 연습하면서 대본 수정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을 처음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아 프로들의 도움이 필요함. ○ 간식을 제공하지만 그 외 어르신들의 요구가 다양해 어려움 ○ 화성의 인물이란 의미는 있지만 작품이 어려워 단원들이 그만두는 상황이 생김. ○ 각본을 단계별로 작성해서 현대에 맞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할 것 같음. ○ 기성작품 중 쉬운 것으로 선택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음 		
사진 (필수)	 		

<4. 화성문화원 → 시흥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시흥문화원		
사업명	어르신문화동아리		
일시	2016년 09월 29일 (14:00 ~ 15:30)		
장소	시흥문화원 사무국 및 강의실		
모니터링 수행자	김숙이	모니터링 대상자	최경애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문화학교 시작하여 현재 봉사단으로 활동 중이며 어르신 단원 중에서 주강사로 전환됨. 봉사단 스스로 활동처를 발굴하기도 함. ○ 현재 단원 모집은 기존 단원들의 인맥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나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도 낮음. ○ 매주 목요일 연습, 출석율은 높음 ○ 한달에 약 4-5회 정도 문화나눔 활동하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단원 모집 어렵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달라 지속성의 문제가 있음. 특히 어르신일자리사업 활동 유경험자는 댓가를 기대함. ○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도 가지고 있음. 또한 무대에 대한 마음가짐, 공연 준비(의상, 연습) 등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사진 (필수)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 체 명	의정부문화원		
사 업 명	다종이인형으로 재연하는 「응답하라 1960」		
일 시	2016년 9월 28일 (14:00 ~ 17:00)		
장 소	의정부문화원 303호 강의실		
모니터링 수행자	양주문화원 박재홍	모니터링 대상자	의정부문화원 김승미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과거에 대한 추억에 열광하고 있는 현재, 어르신들의 큰 장점인 추억의 저장고를 다종이인형이라는 장르로 재구성하고 이야기 옷을 입혀 하나의 생활문화예술로 완성함. ○ 진행사항 : 「응답하라 1960」 사업명에 맞는 그 시절의 일상생활과 전통놀이를 다종이인형으로 만들어 문화원 로비에 전시하여 문화원 방문객 및 전시관을 방문하는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있음. 느리지만 꼼꼼한 어르신들의 손길로 두 번째 다종이인형을 만드시며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열심히 수업에 임하심.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등) - 다종이인형제작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2차 다종이인형 인형극, 3차 다종이인형 동화구연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아이템 개발 필요. - 다종이 공예 특성상 장시간 작업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작업보다는 합동 작업에 대한 미션을 주어 진행하는 방법 모색. 		

모니터링 결과

- 작품 완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관리가 필요
- 모니터링 통해 느낀 점
 - 닥종이 인형 제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았다.
 - 닥종이 인형 제작뿐만 아니라 참여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중한 작품을 문화원회원 및 시민들이 공감하고 나아가 예비 어르신 예술가들에 대한 따뜻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홍보 활동 및 전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
 - 현재의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어질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음.
- 제언
 - 어르신들의 인생에 녹아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문화와 예술이라는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지방문화원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할 생활문화예술 확산의 중요 포인트라 하겠으며
 -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역의 역사가 되고 그역사가 다시 다양한 문화예술의 원소스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으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야말로 지역문화예술의 바탕이 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
 - 끝으로 프로그램의 한시적인 지원과 한시적인 기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변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자생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이 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6. 의정부문화원 → 양주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양주 문화원		
사업명	“나도야 전통주 빛는 장인” 교실		
일시	2016년 9월 27일 (10: 00 ~ 13: 00)		
장소	양주시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모니터링 수행자	의정부문화원 김승미	모니터링 대상자	양주문화원 박재홍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전통주 교육을 통한 가공기술 및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지원 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와 지역의 농산물과 전통문화를 통한 향토음식의 발굴 및 전승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에 기회를 부여 함. ○ 진행사항 :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그 동안 어르신들이 배우고 익힌 전통주 제조의 이론 및 실기를 복습하는 과정으로 필기 시험을 치루어 다시한번 올바르게 주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 동안의 배움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 열정과 관심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인식.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요구 -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세분화 -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모색 - 접근성이 안 좋아 교통에 불편을 느끼나 전통주 만드는 시설이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에 있으므로 이해하고 진행 ○ 모니터링 통해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더불어 전통음식에 대하여도 보존, 발굴, 계승의 필요성을 자각. - 어르신들이 전통문화체험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냄. - 어르신문화활동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지만 추후에는 어르신일자리 창출이나, 어르신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 ○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여가생활 및 전통체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로 세대와 문화간 가교가 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람. 		

<7. 동두천문화원 → 풀짚공예박물관>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풀짚공예박물관		
사업명	2016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일시	2016년 9월 13일 (10 : 00 ~ 12 : 00)		
장소	풀짚공예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6)		
모니터링 수행자	사무국장 박용철 (동행 강사 이양호, 보조 박재의)	모니터링 대상자	풀짚공예박물관 홍재주
사업 진행 현황	총 21회중 20회차 진행중으로 죽부인 만들기와 사업종료를 앞둔 작품 전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 진행하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1년차임에도 비교적 짜임새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 프로그램 소재의 특이성과 독창성을 엿 볼 수 있었음. ○ 참여인원은 약 25명으로 주로 여자구성원들이 많이 있었음 ○ 동두천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다만 장소가 비좁아 수강생들의 교육여건이 미흡하였음. 		
사진 (필수)			

<8. 풀짚공예박물관 → 동두천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동두천문화원		
사업명	2016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일시	2016년 9월 1일 (10 : 00 ~ 13 : 00)		
장소	동두천생활문화센터(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모니터링 수행자	풀짚공예박물관 홍재주	모니터링 대상자	박용철 사무국장
사업 진행 현황	연필통만들기 진행중으로 정상적 진행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7년째 수행하고 있으나 인원모집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임. ○ 프로그램 소재의 특이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며 교육환경이 양호함. ○ 남녀의 성비가 비슷하여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봄. ○ 출석률은 12명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평균연령대가 높았음. ○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 매마수 캠페인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외부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이 돋보임. ○ 다음 사업의 구상 및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며, 문화나눔봉사단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원칙이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진 (필수)			

▶ 일방향 모니터링

<1. 광주문화원 →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		
사업명	'온(溫)-AIR' 영상교육반		
일시	2016년 9월 2 일 (15:00 ~ 17:00)		
장소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정보화교실		
모니터링 수행자	이종남	모니터링 대상자	강수진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 총 8회 교육 실시 ○ 5월 : 총 9회 교육 실시, 1회 야외촬영(내손체육공원) ○ 6월 : 총 6회 교육 실시, 야외촬영 1회(○ 7월 : 총 5회 교육실시, 중간평가(뉴스제작) ○ 8월 : 총 7회 교육 실시 ○ 9월 현재 : 교육 6회째 실시 중, 야외 촬영 1회(청계사)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 참여자 모집 및 전원 수료 가능한 방법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진 바, 기존 시니어기자단을 바탕으로 인원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기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 일부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일일이 개별 지도가 필요해 진도가 느린 점에 관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점 : 미디어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과 지역 홍보자로 활동영역을 넓혔다는 점이 돋보였으나 어르신들의 특성상 무한 반복학습이 필요해 전문가가 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음. 힘든 과정임에도 수업 집중도와 출석률이 양호했으며, 시니어기자단과 연계한 부분이 참고할 만했음. ○ 제언 : 전문가가 되기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자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고양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고양문화원		
사업명	고양 늘푸른 인형극 동화구연단		
일시	2016년 9월 30일 (10 : 00 ~ 11 : 00)		
장소	광주문화원(남한산성 행궁)		
모니터링 수행자	김경숙	모니터링 대상자	광주문화원 이종임 너른고을 옛이야기 나눔봉사단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점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로 외부봉사 시간과 모니터링 시간이 맞지 않아 활동하는 모습은 참관이 어려웠고 남한산성 현장 답사 하는 날 모니터링 진행하였음 ○ 일 년 활동 내용을 사진으로 설명을 듣고 사업계획서 내용 듣고 전해 받음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 1. 수업에 사용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패널시어터 그림자료, 플래시 동화를 이용하여 이야기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임 *매체는 직접 제작하여 사용 2. 2016년 사업을 마친 후 어떻게 봉사단을 지속할지에 대한 의견 *월 1회 동아리로 모여서 역사이야기 연구 준비 할 예정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 3. 고양문화원의 전 단계를 광주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받기로 약속함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통해 느낀 점

*고양문화원의 동화구연 이야기 전달 형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계심

*차이점은 고양문화원은 인형과 같은 매체가 많이 사용되며 광주문화원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음

*이야기만으로 들려주는 방법도 매력이 있음(어르신들이 인형 또는 교육자료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적음)

○ 제언

앞으로 단체가 지속되려면 꾸준한 모임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월 1회의 모임보다는 더 자주 모여서서 결속력을 강화하시는 것이 내년 사업을 지속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이외의 기관(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등)에서의 수업도 추천합니다.

사진
(필수)



<3. 안산문화원 → 풀짚공예박물관>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풀짚공예박물관		
사업명	어르신문화예술학교 - 풀짚공예의 추억		
일시	2016년 9월 6일 (14 : 00 ~ 17 : 00)		
장소	풀짚공예박물관		
모니터링 수행자	이우석	모니터링 대상자	홍재주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구성원들이 활기차고 흥미있게 수강.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푸라기라는 자연 재료를 활용한 공예품이라는 데서 호감이 생겼으며, 어린시절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풀짚공예품들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정감나서 좋았음. ○ 풀짚공예품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일정수준의 기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듯. 		
사진 (필수)			

<4. 포천문화원 → 양주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양주문화원		
사업명	“나도야 전통주 빛는 장인” 교실		
일시	2016년 9월 27일 (10 : 00 ~ 12 : 00)		
장소	양주시 맹골마을 전통주 체험관		
모니터링 수행자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김경민	모니터링 대상자	양주문화원 사무국장 박재홍 어르신문화활동가 사업참여자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5월 개강 참여자 30명 - 매주 화요일 전통주 만들기 이론교육 진행 - 전통주 만들기 실기교육 및 체험 진행 - 2016. 9월 27일 전통주 결과물 품평회 개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주 체험 및 품평 - 2016. 10. 4 수료식 개최 예정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시 재료비 예산이 부족함 -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초급 중급 고급단계로 변환 필요 -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많지만 예산 문제로 제약이 따름 - 전통주 제조법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전파 필요 -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p>* 교육장소가 한적한 시골체험관으로 교통이 불편 하지만 참여 어르신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 하고 계시며 지속적이고 심화적인 교육을 원하고 계심. 향후 교통편 제공과 함께 실습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었으면 하며 전통주 보존을 위한 기록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을 것임.</p>		

<5. 양평군노인복지관 → 고양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 체 명	양평군노인복지관		
사 업 명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일 시	2016년 9 월 28 일 (10 : 30 ~ 12 : 00)		
장 소	고양문화원		
모니터링 수행자	홍희망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대상자	송낙영 과장
사업 진행 현황	<p>고양문화원은 인형극 프로그램이 3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안정적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마.수 계획을 꾸준히 진행중이었으며 참관신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평균 300-400명을 웃돌고 있다.</p>		
모니터링 결과	<p>○ 논의 내용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행 초반 생기게 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대안구상에 대한 방법찾기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성에 대한 사항 <p>○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라는 인적·물적 인프라구성이 좋다는 점을 발견 - 강사와 실무자간의 소통 및 수업진행에 대한 조율이 원활하다는 점 <p>○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문제사항(모집인원, 결원사항 등) 및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점(팀원, 강사, 실무자와의 소통)등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들이나 해결방안은 지역상황에 따른 방법이 필요 - 우리군의 지역적특색이나 문제발생사항을 예견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프로그램 참여어르신들의 자립성을 확고히 하는 방법 모색 		

<6.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 시흥문화원>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사업명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활동가양성사업 ‘가로수밴드’		
일시	2016년 9월 29일 (14:30 ~ 16:00)		
장소	시흥문화원		
모니터링 수행자	김지영, 김숙이(화성문화원)	모니터링 대상자	최경애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의 경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현재 22회기). - 어르신들의 열정과 애정이 높아 출석률도 높음. - 수업은 매주 목요일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진행됨. - 봉사활동의 경우, 외부 의뢰 및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로 참여횟수가 계획보다 많음. - 수업의 경우 참여자였던, 어르신을 강사로 선발하여 참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사업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 참여자와의 관계가 좋아 활동분위기가 밝고 모두 적극적임. - 10월에는 외부 큰 행사 참여로 모두 연습에 몰두하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벌로밴드의 경우, 7년차 밴드로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좋고 실력이 월등하여 지역 내 대표 밴드로 봉사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 담당자분의 고충으로는, 오래된 참여자 분들의 경우 그렇지 않으나 신규 참여자 분들이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하심. 그런 분들께는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 및 성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린다고 함. - 잉벌로밴드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밴드로 봉사 일정 및 장소, 연습 등 모두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담당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사업의 취지와 잘 맞다고 생각했음. - 7년차인 잉벌로밴드가 걸어왔던 길을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밴드를 양성해 나가야 할지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담당자가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가로수밴드의 경우 아직 문화활동가 양성 단계로 잉벌로밴드처럼 자발적이고 실력 있는 밴드로 양성하여, 봉사단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7. 연천군노인복지관 → 평택남부노인복지관>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 체 명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사 업 명	불타는 청춘인형극단		
일 시	2016년 9 월 20 일 (13 : 00 ~ 16 : 00)		
장 소	평택시남부노인복지관 2교육실		
모니터링 수행자	김도현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대상자	오재영 사회복지사
사업 진행 현황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불타는 청춘인형극단 ○ 사업기간: 2016.04.01~2016.11.30 ○ 교육시수: 1회당 3시간 ○ 사업참여인원수: 24명 ○ 주요프로그램: 인형극 교육 프로그램 ○ 교육 외 활동: 발표회, 봉사활동 1회 ○ 사업추진경과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 홍보 및 모집 수시 진행 2) 인형극 전문 강사 모집 - 강사 1명 섭외 후 수업 진행 3) 인형극 프로그램 OT 실시 및 프로그램 실시 - 25회기 실시 4) 인형극 공연 관람 진행 - 9월 중 시행 5) 재능나눔봉사활동, 평가,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 - 예정 <p>1) 모니터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점 공연관람을 위한 준비 진행 중. ○ 수업은 배경음악과 같이 인형극을 위하여 인형극 대본을 더빙 하여서 수업을 진행 		

모니터링 결과

- 대본에 맞게 인형극을 진행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사전에 검토한 사업계획서 회기대로 진행중.
- 어르신의 경우 기존 24명 계획 대비 절반정도의 어르신께서 활동
- 회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평택 시내권 내에 있어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시설 및 단체와 협력 진행중.

□논의내용

- 애로사항으로 어르신이 인형극이라는 것에 부담감을 느낌.
- 암기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대사를 더빙으로 대체.
-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어르신 참여방안에 대한 고충.

□모니터링 결과

-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공통점을 볼수 있었음.
- 차이점은 합창은 실력이 비슷해지면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인형극의 경우 개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의 부담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

□모니터링 제언

- 지역에 어르신은 한정되어 있으며, 어르신의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 느낌.
- 합창단, 인형극은 인식에 있어 생소하시고 또한 이를 토대로 연습 시행 후 공연에 대한 부담감의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호모니터링 보고서

단체명	시흥문화원		
사업명	추곡서원(楸谷書院)		
일시	2016년 9월 28일 (13 : 00 ~ 14 : 00)		
장소	시흥문화원		
모니터링 수행자	강 수 진	모니터링 대상자	최 경 애 팀장
사업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점에서 진행현황 파악 다소 무거운 소재인 양명학을 시민들에게 익숙한 서예와 접목시키고 또한 양명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수업을 포함시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특화된 수업이라고 생각된다. 서예전과 학술대회 및 총31회 교육과 매마수 특강으로 계획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총4명이 자원봉사자의 업무지원으로 수업참여나 교육 이외이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매 수업 현장을 기록을 위해 영상촬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등): 여느 기관, 여느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로 수업 참석율이 100%로 나타나지 않은 점이 어려움인 것 같다. 매 수업시 전원참석은 힘든 부분인 것 같았으며 양명학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소재로 진행되는 교육이라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고 포기자에 대한 결원을 배우는 일들이 힘든 부분인 것 같다. ○ 모니터링 통해 느낀 점 문화원의 특성상 노인복지관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양명학이라는 소재와 지역적 문화와의 매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 제언 사업계획당시 목표한 바를 달성하여 차기년에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되길 빌어봅니다. 		

제2차 워크숍
강의자료
<어르신 삶 그리기>



여 백

호모 헨드레드 시대의 노년 교육

- _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열린책들 2016)
- _ 고미숙 외, 『나이듦 수업: 중년 이후 존엄한 인생 2막을 위하여』
(서해문집, 2016)

고영직 | 문학평론가,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요즘 노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노년 문화예술(교육)을 특화한 정책사업이 활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우리 안의 인식과 관심은 노인 '문제'로써만 접근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적 성찰이 요청된다. 노인은 언제나 '문제'의 대상이 될 때 정책적 대상으로 취급되었지, 한 사람의 오롯한 '존재'로서 이해되고 존중을 받는 사회문화정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혹은 노년에 관한 담론 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것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년 '존재'로의 획기적인 시선 전환이 없고서는 노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형성은 간단치 않으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세대전쟁 양상마저 띠는 세대 간 대화 부재 상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걱정스럽다.

노인 혹은 노년은 누구인가. 그리고 노인 혹은 노년은 무엇을 욕망하고, 노년은 무엇으로 살고자 하는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스웨덴 여성작가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Catharina Ingelman-Sundberg)가 쓴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2013년, 한국어판 2016년 출간)라는 소설은 노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노인요양소에 거주하는 전직 체육 교사 출신의 79세 메르타 할머니이다. 메르타 할머니는 체육 교사 시절 불의(不義)에 맞서 자주 반항을 하며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꿈꾸어온 사람이다. 그런 메르타 할머니의 삶이 한순간에 변한 것은 '고아원 같은' 노인요양소에서 생활하면서부터이다. 메르타 할머니가 "여기, 노인요양소에 들어온 이후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변해 버렸을까?"라고 자문자답하는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요양소 같은 이른바 제도화된 복지시설에서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메르타 할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메르타 할머니는 요양소의 은방울꽃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노인강

도단을 결성해 박물관의 그림을 훔치고, 은행을 털어 '강도 행각'을 벌이며, 마침내 외국으로 도망을 친다.

왜 메르타 할머니는 감옥에 가기로 작정한 것일까. 그것은 '빛나는' 제3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8시 취침, 간식 금지, 산책은 어쩌다 한 번만 해야 하는 노인요양소에서 썩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르타 할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 "나이 많은 노인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이 날도둑놈들이 활개를 치는 사회에서 79세의 노인 메르타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뭐가 있겠는가?" 소설은 일종의 범죄소설 형식을 취하지만, 시종여일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메르타 할머니를 비롯해 스티나, 안나그레타, 천재, 갈퀴 등 5명의 남녀 혼성 노인강도단의 범죄 행각이 진행될수록 작가의 의도가 위협받고 있는 소수자로서의 노인(혹은 노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작가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가 강도단의 리더이자 소설의 주인공 메르타가 '자신과 닮아 있다'고 술회한 것에서도 작중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출간 즉시 스웨덴에서만 4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40여 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소설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는 이른바 1백세 시대를 의미하는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 시대 노년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질문하게 하는 작품이다. 나는 특히 메르타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었던 곳은 인스턴트식품으로 배를 채운 다음, 플라스틱 커피잔을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노인요양소가 아니었다고 술회하는 대목에서 오래 눈길이 머물렀다. 이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품위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품위 있는 삶은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라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 없다는 점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의 '대상'으로서 노인을 대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정책의 '주체'와 삶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소설의 맥락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은 메르타 할머니의 진술은 품위 있는 노년의 삶과 깊은 관련을 맺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옛날에는 이 요양소에서도 노인들이 각자 작은 개인 부엌들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서 새로 온 주인이 이 개인 취사 시설을 없애 버렸다." 결국,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타율적인 삶이 아니라, 노년 스스로의 주도성을 어떻게 일상적 삶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노인복지관 등에서 현재 시행하는 프로그램 공급 위주의 노년 문화예술교육에서 전적으로 탈피해 노인들이 주도하는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충북 옥천군 안남어머니학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활동

하는 뭐라도학교의 사례는 그런 의미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나이듦'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노년으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는 노인친화도시를 선언하면 저절로 보장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책 『나이듦 수업』(2016)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2014년부터 세대 간 문화적 공유지대의 접점을 형성하고자 <오버 더 시니어>라는 정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껴온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척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심리학자 김태형이 지금의 노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고 역설하는 주장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한 사람의 노인 혹은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삶의 이력(履歷)을 온전히 주목하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력이라는 한자에 나오는 '이(履)' 자는 신발이라는 의미이다. 이력이란 결국 '신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분 한 분의 노인이 걸어온 신발의 역사를 더듬으며, 삶의 주인공으로서 관계 2막을 연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해외로 도피하는 메르타 할머니 일행이 스톡홀름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 내용은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정계에 입문하려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적어도 6개월 동안 노인요양소에 와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같은 구절이 그렇다. 인간에 대한 질 낮은 인식에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년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도전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팔순의 메르타 할머니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러준 지혜였다. (* 출처: 웹진 《아르떼365》, 2016-09-12)

[보론] 관행을 깨는 수업혁명을 위하여

- _ 윤양수, 『수업비평』(살림터 2014)
- _ 오종우, 『예술수업』(어크로스 2015)

교사(예술강사)의 성찰과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자주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곤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예술강사 혹은 교사의 성찰과 성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성찰과 성장을 위한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실감한다. 한 사람의 교사 혹은 예술강사가 일종의 매개자라고 할 때, 그런 매개자들을 '재(再)매개'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서 '수업비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컨설팅 혹은 모니터링 같은 제도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제도로는 '자족과 자폐의 나르시시즘'이라는 회로 안에 갇힌 것으로 간주되는 학교 안팎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컨설팅은 하나의 팁(tip)에 불과하고, 모니터링은 평가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금은 '더 나은 실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수업비평 워크숍을 진행하는 교육과 나눔의 공동체 '다운'의 수업비평 경험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변화를 위해 참조할 점이 적지 않다. "최신 트렌드와 메이크업 기술로 시선을 사로잡는 스펙터클한 수업공학이 탄생한다"고 한 윤양수 선생님의 날선 비판은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경우 또한 동일한 문제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양수 선생님의 『수업비평』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생성문법'을 수업비평에서 찾고자 한 학교 교사들이 모듬을 이루어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물을 묶은 것이다. 책에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생들과 진행한 수업에 대한 자세한 비평문이 수록되어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생들과 함께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한 계유정사를 다룬 조경삼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이 수업에서는 '동전 던지기'를 생략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식이다. 재판 형식과 디베이트(debate) 포맷의 혼용에 따른 혼란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디베이트와 토론의 차이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일본 교육자 사토 마나부가 제안한 '배움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협력수업을 수년째 진행하는 이우학교 방지현 선생님의 고3 대상의 독서 수업이 펍 인상적이었다. 윤양수 선생님은 이 수업에 대해 "교과의 경계와 중력을 터널링(tunnelling)하고 있다"고 상찬한다. 수업문화의 변화를 꾀하려는 '균열의 쾌감'을 맛보았기에 가능

한 표현이었으리라. 윤양수 선생님이 지금 여기의 교사는 학습하는 전문가 (professional learner)로서 학인(學人)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수긍이 된다. 수업비평을 내부자비평 혹은 동료비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법하다.

그런데 수업비평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야말로 더 절실히 필요한 교육적 도구가 아닐까 한다. 수업비평 워크숍을 통해 예술강사 동료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들이 자신의 수업 내용을 얼마나 외부에 '개방'하는 용기를 발휘하느냐 하는 점이다. '자족과 자폐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각 광역센터에서 예술강사들에 대한 '재매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모니터링 방식에서도 예술강사의 성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도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적 있는 [지지봄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센터 발행) 같은 문화예술교육 비평 웹진을 각 광역센터에서 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수업혁명은 현장에서 새로운 '수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예술수업』은 좋은 참고서가 될 법하다. 성균관대 오종우 교수가 2009년부터 진행해온 교양강좌 <예술의 말과 생각> 강의록을 정리한 『예술수업』은 '인문학의 전위(前衛)'로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인문학자의 강의실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예술 장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예술수업』을 예술강사 동료들과 공부하는 것으로 수업비평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무엇보다 특정 예술장르의 기법이 아니라 예술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문화예술교육 수업 현장에 모니터링 등을 가보면 간혹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특정 예술장르의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법 혹은 기능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법을 가르치느라 "예술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무감각'"이라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 <간이휴게소>(1927)라는 그림을 설명하면서 "타력(精力)이 붙어 관습화하면 그것의 의미를 삭제한다"는 표현에 오래 눈길이 머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타력(精力)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도 알고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업 현상을 함께 관찰하고 연구하고 소통하는 실천 공동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술강사의 성찰과 성장의 도구로서 '수업비평'을 적극 검토하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제도의 '외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윤양수 선생님 등이 참여한 『수업의 정치』(2015)라는 책을 곁들이면 더 좋은 길라잡이가 되리라 믿는다.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1898)에 대해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가 “이 작품을 읽고 나니 다른 작가의 작품들은 모두 펜이 아닌 막대기로 쓴 것처럼 여겨지는군요”라고 한 평이 『예술수업』을 덮고 난 뒤에도 잊히지 않는다. 문화예술교육 수업 현장에서도 그런 강렬한 경험이 실현되는 수업혁명이 이루어지길 나는 희망한다.

제2차 워크숍
강의자료
〈지역로드맵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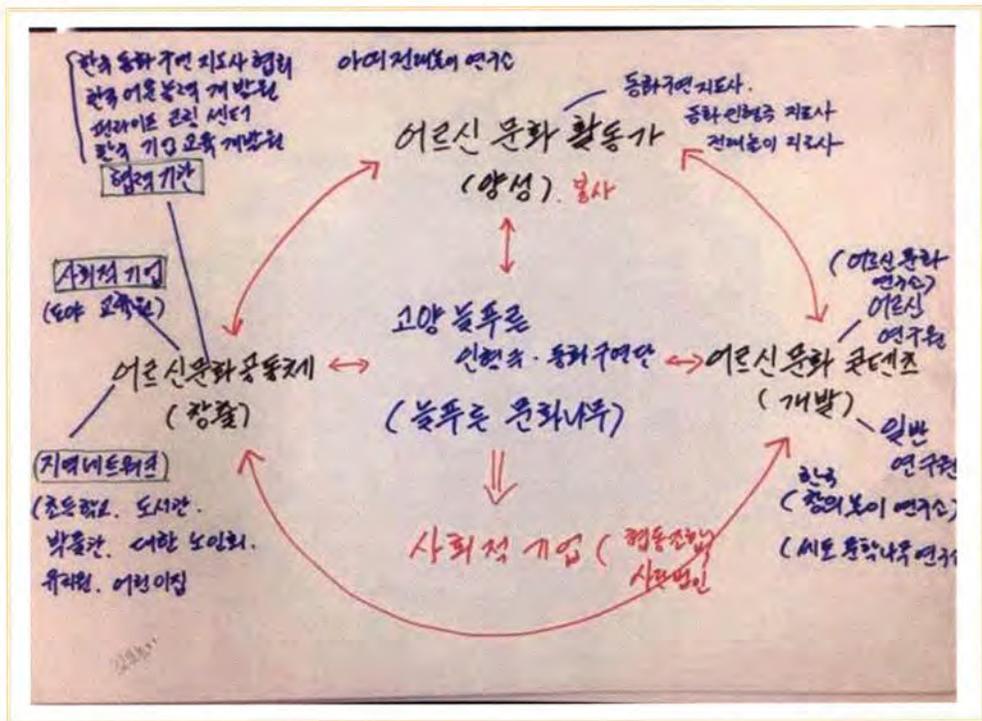


□ 지역로드맵구상

- 진행 : 최영주 사무처장(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31개 시군의 로드맵을 그려보자. 다 합치면 경기도에서 하려는 어른신 사업이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형태가 도움이 무엇이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고양



↳ 김경숙 고양문화원 강사

문화원에 다른 사업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늘푸른 인형극단 사업 올해부터 봉사를 계속했고, 올해부터 봉사와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기관을 이용해야하는데 초등학교 도서관, 유치원, 박물관과 연계 방안을 생각.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고 진행 중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어서 파주의 사회적 기업과 연결 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디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동화교육 지도사 협회 학술협회 등과 연결해서 정보를 받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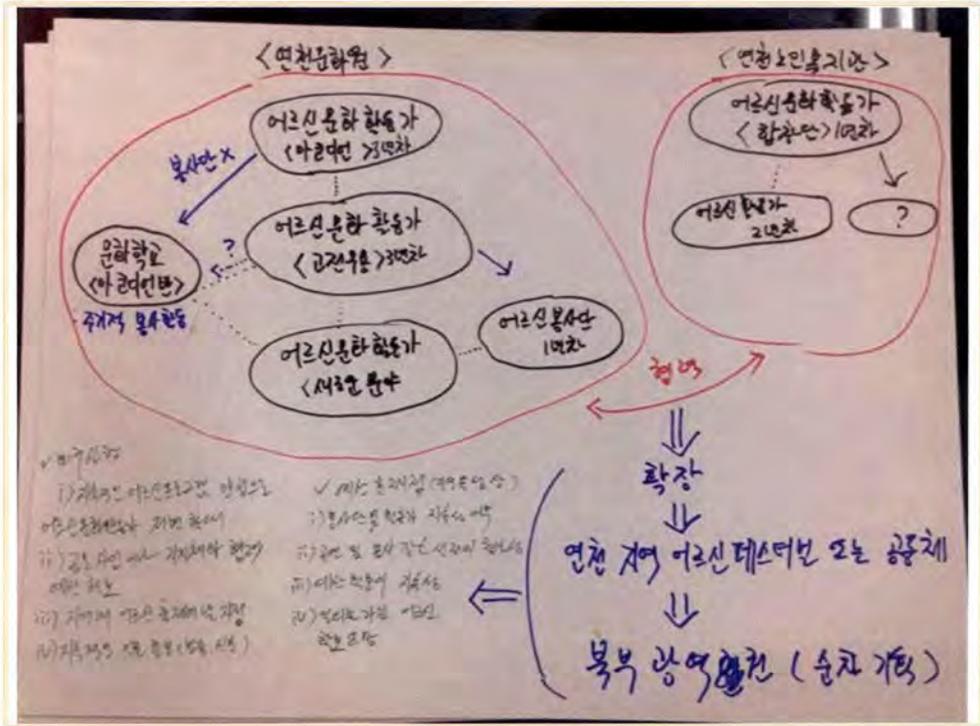
그리고 사회적 기업 공모전에서 홈페이지나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늘푸른 문화 나눔'이란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려 해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면 3년이 걸리는데 그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연구원을 구성해서 어르신문화 연구소를 두었어요. 봉사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연구원인데 여기서 어르신 강사를 양성하고,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컨설턴트 어떤 공모전이었나요?

김경숙 강사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는 단체한테 기본 자금을 지원해주고요. 시마다 다른데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문화원에서는 어르신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 여기서 양성된 분들 중에서 일 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창출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사무처장 각각의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연천문화원



⇒ 왕윤식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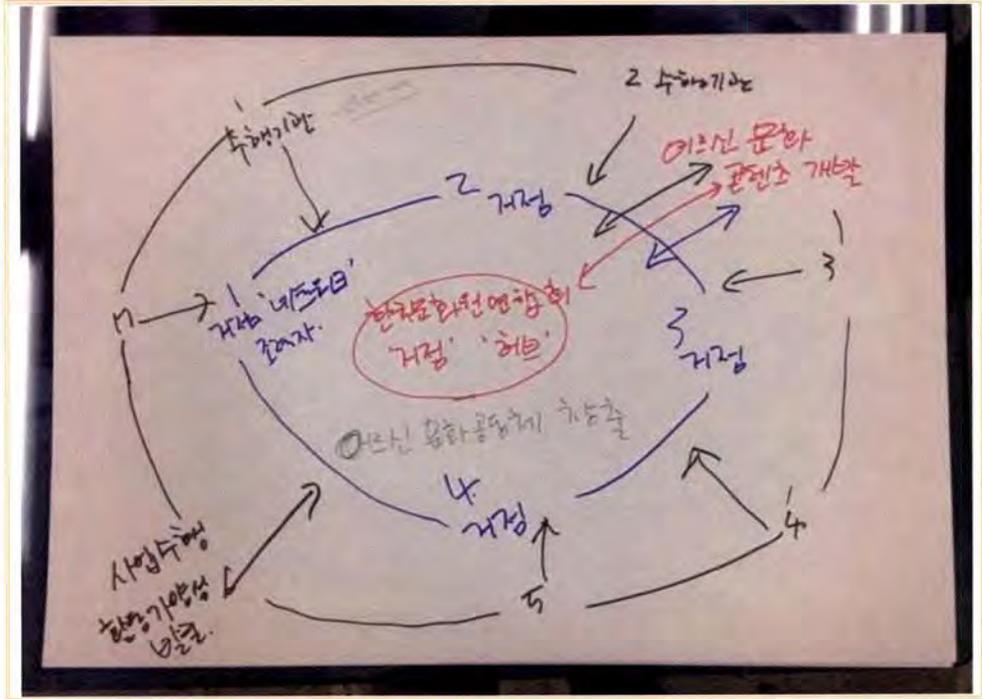
고양에서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 쪽은 생각을 못했어요. 연천도 도시에 비해서 실제로 일자리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농사지으시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적고, 그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 구색만 맞춰 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문화원에서 처음 아코디언으로 어르신프로그램을 했었어요. 3년 정도 했는데 봉사사업으로 진행을 안시키고, 문화학교 수업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 했고, 다음으로 새롭게 고전무용으로 공모를 했는데 복지관이랑 근접해서 겹치는 부분 때문에 전시나 공예 쪽을 하고 싶어도 공연프로그램으로만 기획을 했어요.

고전무용도 3년차를 진행 중인데 어르신프로그램 3년차가 되면 다시 다른 사업을 만들거나 봉사자나 동아리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데 봉사자로 가느냐 문화학교로 지속적으로 다시 강의를 하느냐하는 선택에 처해 있어요. 어르신사업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서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연이든 전시든 페스티벌 31의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같이 협력해서 소소하게라도 어르신페스티벌 같은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후에는 북부권역이 함께 돌아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일 자리를 창출하려면 기획단계 부터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전무용이나 아코디언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해도 이걸로 일자리 창출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전문가 양성하는 것도 힘들고, 제대로 실력이 안 느끼는 분들도 많고... 일자리를 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사실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애초에 프로그램이 주로 공연 이니까 공연 쪽으로 생각했어요. 일단 도식작성한 건 프로그램을 잘 꾸려나가야 저변이 확대되는 거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에 가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고, 이후에 지역 어르신의 날로 조례를 지정할 수 있고, 홍보를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봉사단이나 활동가들이 그대로 가지가 않아요. 그게 관건이고, 연천같은 경우에는 공연 장소가 협소해요. 공연장소를 확보하고, 모색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숙 고양문화원 강사 저희는 문화원안에 다른 단체들이 있어요. 보존회도 있고, 배우는 활동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형극동화구연은 공연하는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연주. 공연을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함께 하는 방법도 있어요.

3. 이천문화원



⇒ 이미경 이천문화원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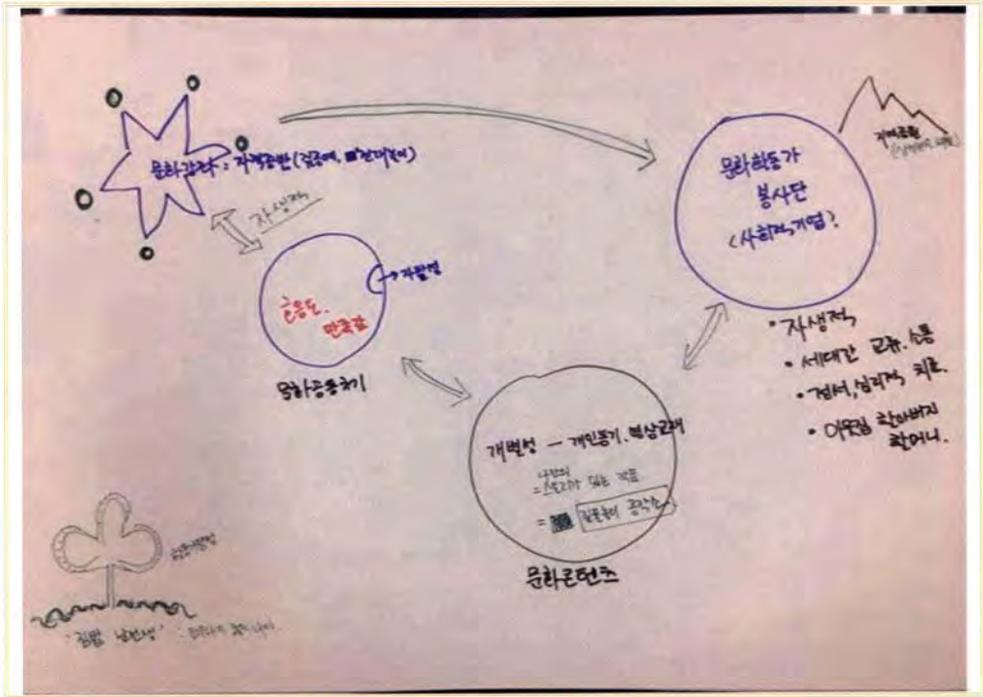
2년 정도 동아리활동가와 활동가양성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음단계로 사회적 기업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문화공동체정도인데 호응도와 만족감은 높는데 자발성은 거의 없으세요. 강사와 수강생의 친밀도가 높아서 수업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자발성은 없는 편이구요. 저는 이분들이 계속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분들만의 자발성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거 같아서 연관성이 있는 문화 강좌들과 연계를 해서 동기부여를 하면 사회적 기업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해요. 젊은 세대가 투입이 되면 행정적인 부분은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그게 일자리 창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개별성 작품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자기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 중간사업으로 문화콘텐츠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건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들이 연관성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설봉공원에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 가지 더 계획하고 있는 건 할아버지 음식 반을 만들 거예요. 활동가 양성을 할 거고, 여러 동네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긴 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이런 수요가 있어서 요리 강좌가 아니라 집 밥으로 해볼 생각이예요.

김경숙 고양문화원 강사 강좌에 필요한 것들이 연관되어 있으면 주변에 연관된 것들을 문화원끼리 서로 구매를 해주면 어떨까요.

4.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 강수진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이해한 흐름만 그려봤어요.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문화를 잘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는 젊은이들의 것이라는 편견이 있으세요. 그걸 깨고 동시에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을 통해서 흥미와 관심이 생기면 애정과 열정으로 변하면서 실력과 자신감이 저절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르신 문화 활동가가 생겨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인들에게 권유와 홍보를 하면 또 다른 어르신의 편견도 깨면서 하나의 문화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화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외부에서도 관심으로 가지고, 지지를 해줄 것이고, 문화 예술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면 소득이 창출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탄생하는 흐름이 문화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려봤습니다.

저희는 아직 흥미와 관심 단계인데요 저희도 콘텐츠가 탄생하는 단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최종 목적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셈이네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강수진 사회복지사 문화활동가 양성으로 가로수 밴드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어르신들이 문화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문화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강수진 사회복지사 공연을 한다던지 사실 영화 보는 것도 어르신들이 안 좋아하다가도 막상 가면 좋아하세요. 영화관이나 공연을 보는 것도 소수의 어르신들만 좋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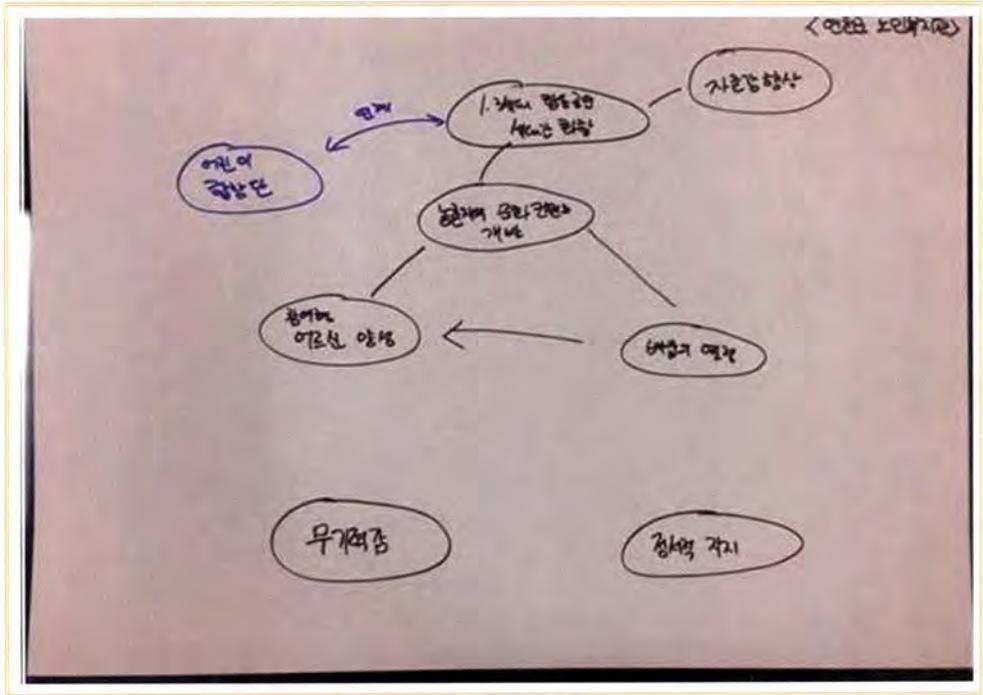
컨설턴트 문화 활동 전반을 말씀 하시는 거죠?

강수진 사회복지사 네

2016년에 제가 문화활동가 양성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문화 공동체가 창출
는데 혼자서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기관들 중에서 어디서 구연을 할 것인가 찾아보았더니 교육청
이나 학교, 지역아동센터나 소외 지역과 네트워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어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원의 문학동아리
하시는 분들께 설화를 시나리오로 각색하시는 걸 부탁드렸고, 5개 학교에 가
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에 성취감이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광주이야기를 세대 간에 전달하는 나눔봉사단 활
동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또 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유료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현장에서 직접 수익을 내는 것인데 우리
는 시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지원받는 구조죠..

6. 연천군노인복지관



⇒ 김도현 연천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저희는 사업이 올해 처음이고요. 연천은 어르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4명중 1명이 노인인데 복지관을 직접 오고 싶어서 오는 분이 거의 없고, 주위의 소개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르신들이 무기력하고, 강좌를 배워 보신분이 거의 없습니다.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배우고 싶어 하고, 경험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구요. 양성을 해서 농촌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 해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천 어린이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쪽 기관과 연계해서 세대 간 교류 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이나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컨설턴트 40명 정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김도현 사회복지사 남성분이 9명이고 나머지가 여성분들입니다.

컨설턴트 남성합창단은 없나요?

김도현 사회복지사 남성합창단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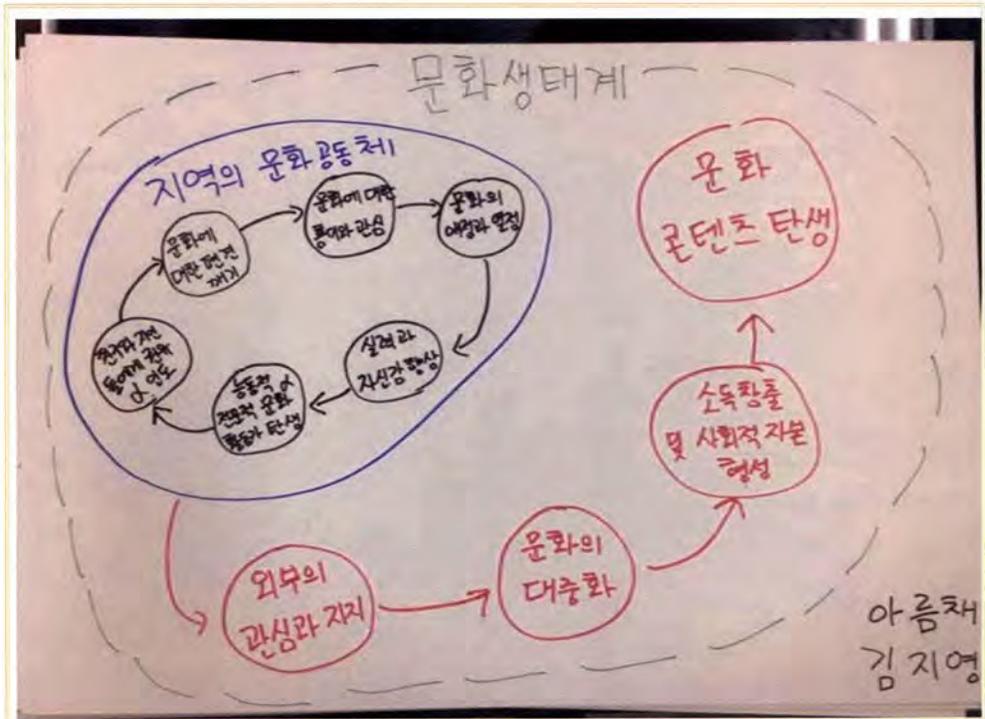
컨설턴트 인구 비율자체도 여성분이 훨씬 많으신가요?

김도현 사회복지사 비율이 7:3정도입니다. 전쟁으로 남성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컨설턴트 연천은 이런 지점이 지역적 특색이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해도 여성회원이 많은 이유는 지역마다 다르죠. 전쟁으로 인해 변화된 인구비율과 그 환경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점 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면, 연천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어르신 프로그램이 나올꺼라는 생각이 드네요.

7.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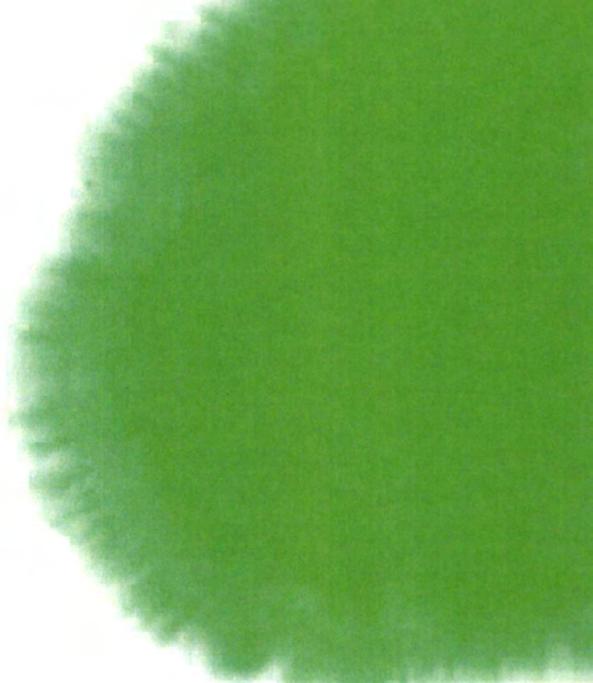
⇒ 김지영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거점센터를 꾸려 각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중간거점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기관들이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게 조력자 역할을 해야할 것 같구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어르신을 발굴하고, 어르신 활동가를 양성해서 어르신들의 공동 문화가 창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제 강의에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90%이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양성으로만 끝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 백

p.95-96



Ⅲ 후기

1. 에필로그
2. 기획자교류지원사업 이모저모

여 백

1. 에필로그

- 그들의 마무리 이야기 -

사무처장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된다는 것은 성과관리가 잘 되어 한다는 겁니다. 성과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결국 다시 돌아오는 얘기지만 이 사업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과관리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공연형 내지는 활동가양성에 집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 활동가 양성이면 활동에 대한 포인트가 보통 가있어요. 어르신들이 활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의 고민들은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에 집중을 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쪽에 집중을 하게 되었을 때 자발성 부분을 해결하게 되지 않을까... 의정부문화원에서 한마음 실버밴드를 거의 5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의정부 국장이 이상하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유심히 들여다보았더니 되게 치열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문득 “어르신들 재밌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재밌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밴드를 과감히 접어 버리고,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그 와중에 “뭘 만드는 걸 좀 해봐” “닥종이 인형으로 풍경같은 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 같은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 풍경들을 닥종이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닥종이 인형만들기가 제목은 진부할 수 있지만 실버 밴드를 접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천문화원에서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현재 세대와 연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부침개도 그렇고, 젊은이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즐겁게 노는 것이 소통일까 하는 관점에서 살짝 다른 관점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해왔던 기술, 요리의 노하우, 짬을 만드는 기술들이 짬풀 공예가 단순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

나라 현재의 문화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들 지역 내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다들 어르신 활동 쪽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공연의 장이 필요해서 네트워크를 그 쪽으로 고민하시는데 초점을 활동가, 사람 쪽에 맞추면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문연이 허브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경문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며 세팅해야하는데 광주문화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안에서 단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고, 지역다움에 대한 고민을 사업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일자리인데 저는 일자리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어르신 일거리',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들로 아트마켓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호호의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건가요??

김경숙 강사 단체가 활동하는 사진이나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 (사례발표)들이 페스티벌에 전시되지 않나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공연하는 걸 회원들과 함께 봤는데 자극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관객이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니까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주변에 홍보가 되서 젊은 사람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경 과장 어린이공연과 같이 어울려서 공연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섞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김지영 사회복지사 문화원을 잘 몰랐는데 사업 바운더리 자체가 굉장히 넓고, 참여하는 세대나 단체의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아요.

강수진 사회복지사 복지관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워크숍에 와서 문화원 사업을 보니까 단순히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아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왕윤식 사무국장 문화원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인원교체가 계속 되는데 핑계일 수 있지만 다른 문화원이나 복지관에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얻어 가는 것 같아요.

이미경 과장 워크숍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참여를 못해서 아쉽고, 연결선 상의 워크숍이라는 게 좋은 것 같고, 다른 기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르신에 대한 이해가 복지관이 훨씬 깊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나누어질 수 있어서 또한 좋았습니다.

김도현 사회복지사 복지관끼리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내년에는 어르신, 강사, 기획자들이 통합 워크숍 개념으로 가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으니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미경 과장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자생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연합회에서 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 실무 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컨설턴트 이번에 모니터링을 다닐 때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행정적인부분들이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담당자들 역시 쉬운 일은 아니므로 연합회차원이나 도연합회차원에서 몇 회 차로 나누어 기획자들에게 교육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도 연합회에서 참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들이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기획자교류지원사업 이모저모

□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 2차 자문회의

□ 1차 범업 워크숍



⇒ 사업선택과정 설명



⇒ 사업내용 찾기



⇒ 사업내용 찾기



⇒ 사업소개지



⇒기관사업설명 및 상호모니터링 홍보



⇒기관사업설명 및 상호모니터링 홍보

□ 2차 워크숍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 e l 031-239-1020
F a x 031-239-3875
인 쇄 2016년 11월 15일
발 행 2016년 11월 30일
인 쇄 처 글그림

이 책은 '2016년 국고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